

Daily Auto Check

2020. 11.2(Mon)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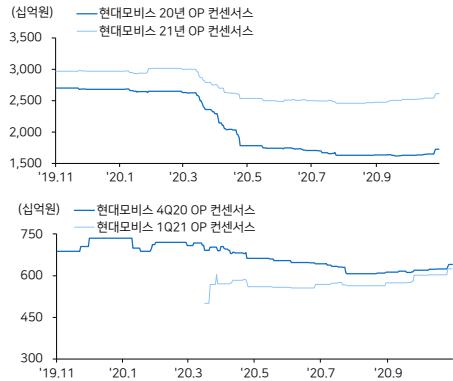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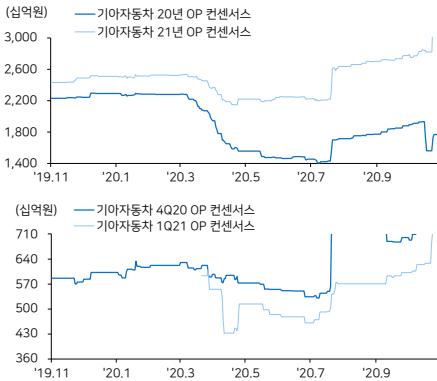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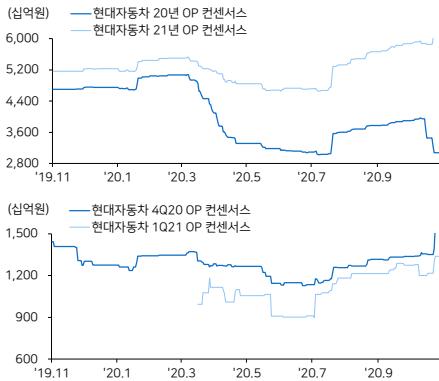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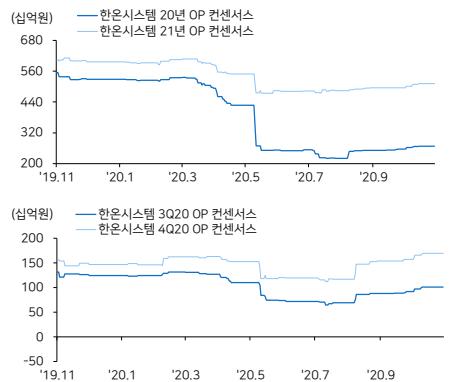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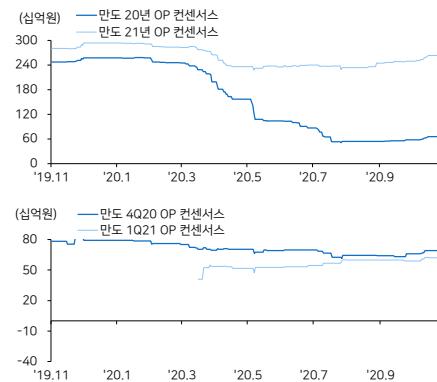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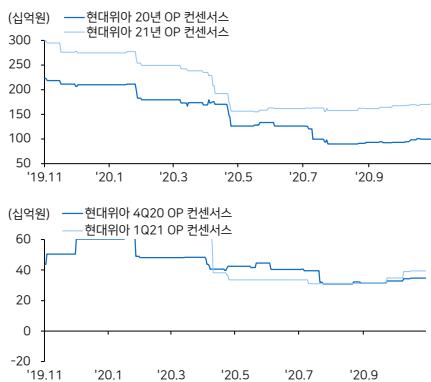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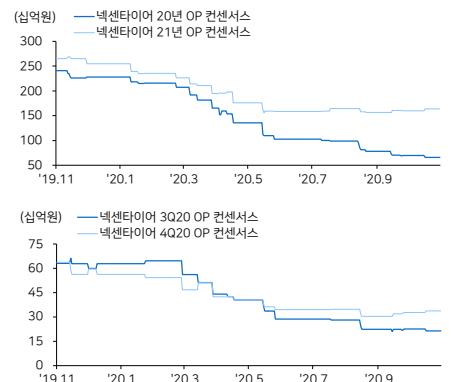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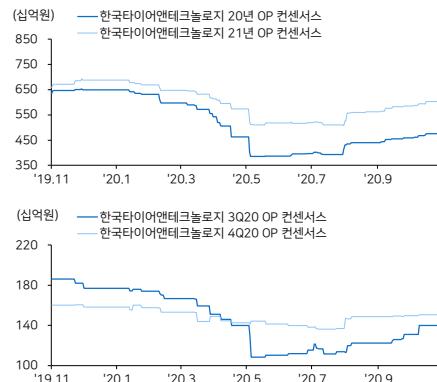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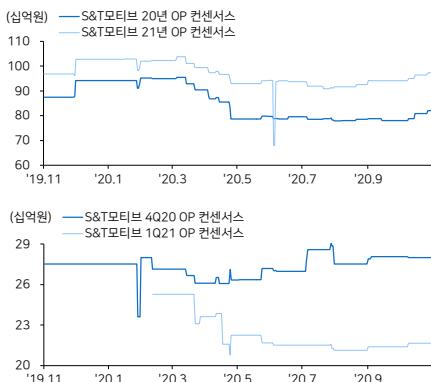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정의선이 쏘이울린 수소사회…현대차 생존·미래 책임진다 (시사오늘시사온)

정부부 “수소경제” 밀그림 속 정의선식 색인하기 가속화되고 있음. 지속가능성 넘어 新성장동력 자리매김 하는 중. 그룹총 충동 위해 수소차 수직계열화 구현 중. 미래차 경쟁력 제고 속 내연기관 고종전략 필요.

<https://bit.ly/2JknyzW>

한달만에 줄어든 수출…반도체·자동차는 순항 (머니투데이)

수출이 한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 15대 주요 품목 가운데 7개가 플러스를 기록. 자동차는 1년 전에 비해 5.8% 증가하며 2개월째 플러스를 기록. 코로나 재확산으로 유럽 수출이 감소했으나 소형 SUV로 인해 수출이 회복되는 추세다.

<https://bit.ly/381N0tm>

“코로나도 넘었는데” 한국지엠/기아차 파업 수순…車 노사 리스크 가중 (전자신문)

한국지엠과 기아차, 르노삼성차 원성차 3사가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파업 카드를 꺼내며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함. 코로나 19 이후 수출이 고꾸라진 상황에서 노사관계가 새로운 경영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음.

<https://bit.ly/34LR0qJ>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된다 (조선비즈)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는 배출가스 측정기 등 내연기관 정비용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될. 또 공공택지 개발 시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포함됨.

<https://bit.ly/3jfFvmo>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국내 판매 1만대 돌파 (광주드림)

현대차에 따르면 넥쏘는 2018년 3월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된 이후 2년 7개월 만에 누적 판매 총 1만대를 기록. 구체적으로 2018년 727대, 2019년 4194대, 2020년 5079대(10월말 현재)가 판매됨.

<https://bit.ly/3eiQyG>

현대차, ‘더 뉴 쏘나타페’ 가솔린 사전계약 실시 (RPM9)

현대차가 ‘더 뉴 쏘나타페’ 가솔린 2.5 터보 모델의 사전계약을 11월 2일부터 실시. 지난 7월 판매를 시작한 디젤 2.2 모델은 고강성 경량 차체와 첨단 안전 신기술을 바탕으로 활용도 높은 공간과 우수한 안전성을 갖춰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https://bit.ly/2kO1BqX>

글로벌 자동차 회사, 3분기 실적 회복…미·중 고급차 시장 수요 늘어 (조선비즈)

코로나19 여파로 삼반기 대규모 적자를 냈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3분기 실적이 개선됐다는 발표를 출시해 내놓고 있음. 미국, 중국 등에서 고급·대형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기기 개선되고, 그에 따라 생산성이 제고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됨.

<https://bit.ly/2HY18Eh>

LG화학 전지사업 분할…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굳힌다 (연합뉴스)

LG화학이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기업 설립을 위해 전지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확정.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 가칭 ‘LG 에너지솔루션’이 출범. LG화학은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LG화학 전지사업부 분할안이 승인됐다고 밝힘.

<https://bit.ly/34MrnGi>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